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金重漢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試論 『素問大要』의 寫作動機與石谷醫學의 得失

金重漢

東義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素問大要』는 朝鮮 末代 醫家 石谷 李圭峻 先生의 著作. 此本 可以說是我國 現存 最早의 黃帝 內經 校註 本. 本篇 當中, 首先 闡明了 石谷 先生의 生涯 與 業績, 記述了 『素問大要』의 著書 動機. 以 圖表 的 形式, 提示了 王冰 素問 本의 篇名 和 對比 圖及 對 原文의 校正, 最後 列舉了 在校 正及 註釋 當中 最 突出의 三個 問題 (“天明 則 日月 不明”, “陽氣 者 閉塞”, “惡氣 不發”). 試 探討 作者 在 醫學 方面의 得失.

關鍵詞: 素問大要, 石谷, 動機, 得失.

I. 序論

『素問大要』는 朝鮮 末 名醫 石谷 李圭峻이 著作한 우리나라에 現存하는 最初의 『黃帝內經』校註書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선 石谷의 生涯와 業績에 대한 略史, 『素問大要』의 著作 動機를 기술한 후, 王冰素問本의 篇第와 比較圖表, 그가 한 原文의 校正을 圖表로서 제시하였고, 끝으로 그의 校正과 註釋 가운데 가장 特出한 세 가지 문제를 例舉하여 그의 醫學의 得失을 窺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 김중환,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 45-1
번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kjhan24@hanmail.net Tel : 051-529-3376

II. 本論

1. 石谷의 生涯

石谷의 姓名은 李圭峻이며, 石谷은 그의 號이다. 1855년(哲宗 元年 乙卯) 出生하여 1923년(癸亥)에 逝去했다. 石谷은 幼年부터 聰明하고 英特하였다. 그러나 家勢가 극빈하여 學習을 研磨할 時間적 여유가 없었다. 그는 성장함에 따라 뜻을 품고 無師 獨學으로 학문에 몰두하여 經史로부터 諸子百家에 이르기까지 無不通達하였다. 石谷은 當世의 巨儒로 인정되어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의 體軀는 矮小한 편이었으나 眼睛은 빛났으며, 성품은 剛直하여 不義와 타협할 줄 모르는 不屈의 氣魄이 있었는가 하면, 남루한 衣冠을 하였으며 世習에 盲從하러들지 않고 비판을 가하였으며

實踐과 眞實을 행하였기에 그는 空論空談을 배제하고 權威主義의인 虛勢와 虛禮를 지극히 憎惡하였다. 그의 碑文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말한 글이 있는데 즉 “我欲, 心游黃老, 行守孔子, 取舍在爾”라고 한 것이다.

宋儒들의 六經註疏에 疑惑을 가져 『六經』(毛詩, 尙書, 周易, 春秋, 主禮), 『論語』, 『孝經』등을 刪正하였으며 西曆(陽曆)의 法을 論한 『浦上奇聞』二冊, 黨派의 是非를 論한 『石谷心書』一冊, 數學을 論한 『九章要訣』一冊, 그 외에도 『石谷散稿』二冊 등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醫學 저서로는 『醫鑑重磨』, 『素問大要』, 『本草 上·中·下』등이다.¹⁾

그의 학술적 사상은 <素問附說>에서 기술한 그의 醫論, 즉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脈解 注下解 등을 통해서 볼 때 陽氣를 매우 중시한 扶陽論者라고 할 수 있으며 思想上 있어서도 특히 附子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李附子라고 別稱하였다.

2.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篇次

石谷의 『素問大要』著作動機는 그의 序文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저 黃帝內經은 본래 易經과 더불어 表裏가 되는데 … 漢代 이후로 方士들의 손을 거치면서 書簡의 字가 交錯하여 잘못되거나 읽을 수 없는 곳이 있었다. 唐代에 太業令 王永이 改補하여 註釋과 篇次를 하였고, 이를 宋代 高保衡 등 博士들이 舊本들을 모아 校正하였으나 오히려 그 僞文을 分辨하여 眞本을 밝혀내지 못했으므로, 後人들이 理會할 수 없어서 드디어 廢書하고 閱讀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것은 오직 金人 劉完素와 元人 朱震亨의 私書이니, 이들의 書는 經旨와 天機에 근본하지 아니하여, 荒唐無稽하

고 證驗도 없어서 黃帝에 道가 드디어 絶滅하게 되었다. … 내가 일찍이 『素問』을 읽어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慨然함이 일어났고, 또 간간이 이 書를 가져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서, 이에 그들을 위하여 『素問』의 大要만을 採取하고, 그 잘못된 文을 바로잡아서 주었다. 혹 一篇을 裁斷하여 半으로 생각하였고, 혹은 二, 三篇을 합하여 節錄하였고, 혹은 잘못을 바르게 하여 그것을 表記하였다. 『素問』의 舊本은 八十一篇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이 本은 大約하여 二十五篇으로 만들었다. 비록 그 本源을 다 復元하지 못하였으나 大意에 있어서는 또한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²⁾

이상을 통하여 石谷이 『素問大要』를 만든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는 당시의 醫師(東醫)들이 醫學理論의 根源인 『黃帝內經』을 직접 탐구하지 않고, 단지 金元 醫家인 劉完素(河間), 朱震亨(丹溪) 등 學說을 즐겨 追從하는 弊端을 개탄하여 後學들에게 眞正한 醫學 이론을 傳授하기 위한 교재용으로 만든 것이요, 다른 하나는 당시에 전해져오던 宋代에 新校正한 王水本 『素問』의 原文이 여전히 錯簡과 誤字가 남아 있어 『素問』의 원문을 復元시키는데 一翼을 해야겠다는 학자적인 사명감이 발동했다고 볼 수 있다.

『素問大要』의 篇第 구성과 특징은 『素問』全篇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篇만 발췌한 후, 내용상 상관성이 있는 편들은 서로 합쳐서 하나의 篇名에 歸屬시켰고, 잘못된 原文에 대한 자신의 校正과 아울러 극히 드물게

2) 李圭峻, 素問大要, 大星醫學社, 1999, p23 “夫黃帝之書, 本與易相表裏…自漢以下…方士歷手, 簡有錯字有訛有不可讀者. 唐太僕王永, 改補而註次之, 宋博士高保衡等, 裒集而校正之, 猶未能辨其僞而覆其本, 後之人不能理會, 遂廢不讀焉. 今世所行者, 惟金人劉朱之私書也. 其書不根經旨, 不原天機, 無稽無驗而黃帝之道, 遂絕矣. 余嘗觀素問, 尙有慨然乎心者, 間有以是書來問者, 乃爲之采其大要, 正其訛舛以與之, 或裁半篇而略之, 或合三兩而節之, 或加匡而標之, 舊凡八十一篇, 今略得二十五篇, 雖未能盡復其本而大意亦不違矣.”

1) 김적, 박사학위논문, “한국 최근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특징”, 경희대학교대학원, 1981, Pp. 87~93

일부 原文에 대해서만 자신의 註釋을 달아 이해를 돕게 하였다. 『素問大要』의 篇名과 篇次를 舊本(王永本)과 비교해서 밝히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이상에서 篇名, 篇次를 살펴보면, 비록 『素問大要』라고 命名하였으나, 『素問』이외에 『靈樞』의 本輸篇 과 營衛生會篇 내용의 일부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王永 素問本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五篇을 함께 묶어서 一篇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王永이 補入하였던 運氣 七篇 大論을 거의 대부분이 수록한 것을 보면 石谷은 運氣學의 理論도 중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校正한 내용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代表的인 校正과 註釋

王永本 『素問』의 原文:

“天明則日月不明，邪害空竅，陽氣者閉塞，地氣者冒明，雲霧不精，則上應白露不下，交通不表，萬物命故不施，不施則名木多死，惡氣不發，風雨不節，白露不下，則菀榮不榮，賊風數至，暴雨數起，天地四時不相保，與道相失，則未央絕滅。”『素問·四氣調神大論』

1) “天明則日月不明” 句讀와 註釋

歷代 醫家들의 句讀: “天明則日月不明，邪害空竅”

石谷의 句讀: “天明則日月，不明邪害空竅”

王永의 주석: “大明見 則小明滅”(이후 馬蒔, 吳崑, 張景岳, 張志聰, 高世武 등 大同小異)

吳考槃 견해: 본 문장에 대한 各家의 註譯은 王永이 말한 “大明見則小明滅” 한다는 一語에 근거하여 이리저리 말하였으나, 모두 穿鑿附會하여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해석이다. 經文 자체에 ‘天’字 다음에 ‘不’字하나가 빠진

표 1 『素問大要』의 篇名와 篇次

素問大要 篇次	王永本 篇次(舊本)
上古天真論 第一	上古天真論 第一
	四氣調神大論 第二
生氣通天論 第二	生氣通天論 第三
金匱真言論 第三	金匱真言論 第四
	*(靈樞)本輸 第三
陰陽應象大論 第四	陰陽應象大論 第五
靈蘭秘典論 第五	靈蘭秘典論 第八
	*(靈樞)營衛生會 第十八
	五臟別論 第十一
	宣明五氣 第二十二
	五臟生成 第十
通評虛實論 第六	通評虛實論 第二十八
	玉機真藏論 第十九
藏氣法時論 第七	藏氣法時論 第二十二
太陰陽明論 第八	太陰陽明論 第二十九
	陽明脈解 第三十
熱論 第九	熱論 第三十一
	評熱病論 第三十三
舉痛論 第十	舉痛論 第三十九
風論 第十一	風論 第四十二
	評熱病論 第三十三
	水熱穴論 第六十一
	脈要精微論 第十七
	痺論 第四十三
瘧論 第十二	瘧論 第三十五
	刺瘧 第三十六
經絡論 第十三	經絡論 第五十七
離合真邪論 第十四	離合真邪論 第二十七
	血氣形志 第二十四
	標本病傳論 第六十五
	繆刺論 第六十三
異法方宜論 第十五	異法方宜論 第十二
	移精變氣論 第十三
	湯液醪醴論 第十四
脈要精微論 第十六	脈要精微論 第十七
	平人氣象論 第十八
玉機真藏論 第十七	玉機真藏論 第十九
	陰陽別論 第七
三部九候論 第十八	三部九候論 第二十
六節藏象論 第十九	六節藏象論 第九
天元紀大論 第二十	天元紀大論 第六十六
	五運行大論 第六十七
六微旨大論 第二十一	六微旨大論 第六十八
氣交變大論 第二十二	氣交變大論 第六十九
五常政大論 第二十三	五常政大論 第七十
六元正紀大論第二十四	六元正紀大論 第七十一
至真要大論 第二十五	至真要大論 第七十四

것을 알아서 당연히 天氣가 清明하지 않으면

표 2 石谷의 校正內容

王永本	素問大要	舊原本	今校正
四氣調神大論	上古天真論	閉塞	剛塞
		惡氣	陽氣
生氣通天論	生氣通天論	因於氣	因於風
陰陽應象大論	陰陽應象大論	悲憂	思憂
藏氣法時論	藏氣法時論	脾…禁溫食	禁寒食
		肺…寒飲食寒衣	犯燥燠溫灸衣
		腎…犯燥燠熱食 溫灸衣	寒飲食寒衣
熱論	熱論	可泄而已	可溫而已
脈要精微論	脈要精微論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腎)
		尺裏(以候腹)	尺外(以候腹)
		左外(以候肝)	左內(以候肝)
		內以(候膈)	外以(候膈)
		右外(以候肺)	右內(以候肺)
		內以(候胸中)	外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左內(以候心)
		內以(候臍中)	外以(候臍中)
		浮不躁	浮而躁
		濇者陽氣有餘	滑者陽氣有餘
		滑者陰氣有餘	濇者陰氣有餘
平人氣象論	脈要精微論	三動而躁	三動曰躁
		婦人手少陰	婦人足少陰
陰陽別論	玉機真藏論	四日而死	四日而生
天元紀大論	天元紀大論	天以六爲節	天以五爲制
		地以五爲制	地以六爲節
		六菴	五勢
		五藏	六菴
氣交變大論	氣交變大論	應近則小	應遠則小
		應遠則大	應近則大

日月은 그 光輝를 잃게 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된다. 어디에서 근거하여 알 수 있는가?

그 이유는 上文에서 이미 '天氣, 淸淨光明者也'라 말하여 天氣가 淸淨光明한 까닭은 陽氣가 浮動함으로써 陰晦, 閉塞한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낮에는 日光이 드러나고 밤에는 月光이 드러난다. 반대로 만약 陰雲이 四方에 분포하여 기압이 낮아지면 天空의 光線은 晦塞하여 낮에는 日이 드러나지 않고, 밤에는 月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天不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

氣者冒明' 이라 말하여 上文과 잘 對比된다"3)

근래 학자 任應秋의 견해: "天命의 明은 萌字와 古代에서는 같이 쓰였는데 그 뜻은 不動하다는 뜻이다. 즉 『莊子·應帝王』 편에 '萌乎不震不正'이라고 한 萌이니, 天萌은 곧 天德이 靜止하여 運化하지 않음을 말함이다."4)

石谷의 견해: "天은 스스로 밝을 수 없다. 日과 月의 光을 빌려서 밝은 것이다. 心도 스스로 밝을 수 없다. 耳와 目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心이 淸淨하지 않으면 邪氣가 空竅를 해쳐서 耳目이 총명하지 않게 된다."5)

총평: 吳考槃과 任應秋는 王氷의 註譯대로 보면 上文 "天氣, 淸淨光明也"과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吳는 天明의 '明'字 앞에 '不'字 하나가 빠졌다고 한 반면에 任은 經文을 존중해서 '明'字가 古文에 明과 反義적인 '萌'의 의미로 쓰인 예를 들어 해결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石谷은 원문을 그대로 두고 이치로서 단지 句讀點을 달리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石谷의 識見이 卓越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에서 "閉塞"을

3) 王琦外五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p10 [39] 天明則日月不明: 吳考槃: 本句各家注釋, 根據王氷所說 "大明見則小明滅"一語, 說來說去都是穿鑿, 不太確切. 要之經文在天字下當遺一不字, 言天氣不淸明則日月失其光輝. 何以知之? 因爲上文曾說: "天氣淸淨光明者也."天氣所以淸淨光明, 主要因陽氣浮動, 無陰晦塞滯的空氣. 故在晝則見日光, 在夜則見月光. 相反的结果陰霾四布, 氣壓太低, 天空中光線晦暗, 則晝不見日, 夜不見月. 故曰: "天不明則日月不明, 邪害空竅, 陽氣者閉塞, 地氣者冒明 ……", 與上文天氣淸淨光明正好作對此.

4) 前揭書 p10 [39] 又任應秋: 明, 古通 "萌", 不動也, 莊子應帝王 "萌乎不震不正."天萌, 即言天德靜而不運化了.

5) 李圭峻, 素問大要, 大星醫學社, 1999 p24 "天不自明以日月爲明 心不自明 以耳目爲明 心不淸淨 則邪害空竅 耳目不聽明矣"

“剛塞”으로 校正

(1) 楊上善의 『太素』의 原文과 註釋

원문: “陽氣閉塞, 地氣冒明”

주석: “陽氣失和, 故令陰氣冒覆三光(日, 月, 星辰)”⁶⁾

(2) 王氷의 註釋

陽謂天氣, 亦風熱也。地氣謂濕, 亦云霧也。風熱之害人則九竅閉塞, 霧濕之爲病, 掩翳精明⁷⁾

(3) 張志聰의 『素問集註』

“陽氣者天氣也, 此承上文 而復言天德惟藏, 而無運用不息之氣, 則地氣上乘 而昏冒其光明矣。上節言虛其藏德之體, 此節言失不止之機⁸⁾

(4) 石谷의 註釋:

“陽氣剛實, 充乎六合, 無外無內。陰體柔虛, 冒受陽氣而已。人形之受陽 如地體之冒天氣也⁹⁾

총평: 양상선 태소와 왕비본의 원문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미상에는 별 차이가 없다. 여타 의가들의 주석은 왕빙본에 의거해서 본 문장을 모두 병리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유독 石谷만이 본 문장을 특별히 독립시켜 陰陽의 상호 관계에서 陽氣가 주도하는 文章으로 浮刻시켰다고 하겠다. 즉 그는 原文에서 病理적인 용어인 “閉塞”을 정상적인 의미인 “剛塞”(剛健하면서 充滿하다)으로 校正하여 양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陽氣는 剛實하여 天地 四方에 충만하여 內外가 없다. 陰體는 柔虛하여 陽氣를 수용할 뿐이다. 사람의 形身도 陽氣를 稟受하여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음이 마치 地體가 天氣에 덮여 쌓여 있는 것과 같다.”(註釋의 原文은 위

에 제시한 石谷의 註釋을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宋儒들의 易理觀에 근거하였다고 보아진다.

즉 『周易·繫辭傳』에서 “天尊地卑하니 乾坤이 定矣요. … 動靜有常하니 剛柔이 斷矣요”하였고, 朱子の 『本義』에서 “剛柔者, 易中卦爻陰陽之稱也.”라 한 것과 “乾, 一而實 … 坤, 二而虛 … 蓋天之形, 雖包於地之外而 其氣常行乎地之中也”¹⁰⁾라 한 것이다.

총평: 石谷이 校正하여 주석한 의미가 비록 理致上 틀리지 않더라도 經典의 원래 文章이 上下 內容上으로 의미가 緻密하고 順理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校正하여 陽氣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이론 學의학적 탁월한 업적에 오히려 하나의 汚點이 되었다고 하겠다.

3) “惡氣不發”에서 “惡氣”를 “陽氣”로 校正

“發”字의 의미가 주로 ‘發生하다’ 혹은 ‘開發하다’로 쓰이므로 “惡氣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上下문장(風雨不節, 白露不下)과 의미가 상호 모순이 생긴다. 그러므로 王氷은 “惡, 謂害氣也. 發, 謂發散也”라 註釋하여 즉 “惡氣가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의미가 통하게 하였다. 이후 張景岳도 王氷의 뜻을 계승하여 “惡氣不發, 濁氣不散也”라 註釋하였다.

그러나 石谷은 “陽氣不發”로 고쳐서 뜻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王氷本의 篇第와 다르게 편집된 『黃帝內經』本으로 隋 唐初에 완성된 楊上善의 『太素』가 清末에 日本에서 발견되었는데, 『太素』의 原文이 不字가 하나가 없는 “惡氣發”로 되어있으니, 石谷의 校正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겠다. 부연해서 말하면 『太素』의 原文이 王氷本 보다 文章上 順理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太素』에서 “惡氣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와 石谷이 “陽氣가 퍼지지 못했다”라는 의미

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王洪圖增補點校,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 12

7) 王氷,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1994, p. 13

8) 張志聰, 新編素問集註, 大星文化社, 1994, p. 14

9) 李圭晚, 素問大要, 大星醫學社, 1999, p. 24

10) 備旨具解原本周易(下), 朝鮮圖書株式會社, 大正12年, p. 34

는 표현 방법은 다르나 內在하는 의미는 상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石谷의 校勘 방법은 상당한 學識者 만이 할 수 있는 理校에 능함을 엿볼 수 있다.

III. 結論

石谷 李圭峻(1855-1923)은 儒家の 經典은 諸子百家書에 이르기까지 통달한 大儒이며 아울러 四象醫學의 창시자인 東武 李濟馬와 더불어 朝鮮 末 韓國을 대표하는 兩大 醫家라고 할 수 있다. 그가 『素問大要』를 著作한 동기는 그의 序文을 통해서 當時의 醫業에 종사하는 이들이 醫學理論의 根本書인 『黃帝內經』을 읽지 않고 단지 簡易醫方書나 金元 醫家인 劉河間과 朱丹溪등 偏僻된 學術에 迷惑된 폐단을 개탄하여 후학들에게 眞正한 醫師의 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素問大要』에서 그가 한 原文 校正과 註釋에 관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3가지 예로써 평가해 본다면, “天明則日月不明”에서 “天明”은 近來의 中國 學者들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明”字를 “萌”字로 해석하거나 혹은 “天不明”이 되어야 옳다하여 “不”字 하나가 脫誤되었다고 하였으나, 石谷은 “天明則日月”으로 句讀하고 “不明”은 “天不明”의 의미로 보아 原文을 그대로 두고 醫家들 간에 紛紛한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惡氣不發”에서 “發”을 王氷이 보편적인 의미인 ‘발생하다’라고 하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發散’ ‘解散’ ‘離散’ 등의 ‘散’의 의미로 해석하여 文章上 字義의 결함을 해결했으나, 石谷은 보편적인 뜻으로 보고 단지 “惡氣”을 “陽氣”로 校正함으로써 해결했는데, 이 점은 『黃帝內經太素』의 原文이 王氷本과 반대의 뜻인 不字 하나가 빠진 “惡氣發”로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太素』의 의미와 勿約而相合하였으니, 이로써 그의 學識이 넓고 見解가 탁월

함을 엿볼 수 있다. 단지 王氷本 『素問』이나 『太素』에 上下 文章 內容上 瑕疵가 없는 “陽氣者, 閉塞”에서 “閉塞”을 “剛塞”으로 校正하여 天의 陽氣가 地氣인 陰體에 充滿해 있다고 해석하여 陽氣의 중요성을 浮刻시킨 점은 비록 易理에 의거하면 理致上 틀리지 않고 前代 未聞한 卓見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經文을 함부로 校正하였다는 汚名을 피할 수 없으니, 이는 자신의 높은 학문에 千慮一失이라고 본다. 그 외 藏氣法時論에서 脾病에 “禁溫食”을 “禁寒食”으로 肺病에 “禁寒飲食寒衣”을 “禁焯焯熱食溫炙衣”으로 腎病에 “禁焯焯熱食溫炙衣”을 “禁寒飲食寒衣” 등으로 校正한 것은 그의 末年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無爲堂 李元世의 말에 의하면 石谷의 治法에 있어서 “清上 通中 溫下”를 強調한 思想과 扶陽論의 관점에 입각해서 校正했다고 할 수 있다. 石谷은 그의 醫學思想의 특징과 剛直한 성격으로 因해서 矯枉過直한 면이 있지만, 반면에 당시 醫學理論을 輕視하여 沈滯된 醫學界의 風土를 一變시켜 韓國의학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石谷은 醫學思想으로 본다면 비록 扶陽論者에 속하지만 中國醫家인 景岳이 腎 命門을 重視한 것과 달리 心 君火와 脾土의 기능을 重視하여 의학이론과 임상치료에 있어서 그들의 부족한 一面을 보완하였고 나아가 동양의학 歷史線上에 우뚝 선 一家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1. 김적, 박사학위논문, “한국 최근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특징”, 경희대학교대학원, 1981.
2. 備旨具解原本周易(下), 朝鮮圖書株式會社, 大正12年.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王洪圖增補點校,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4. 王琦外五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5.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1994.
6. 李圭峻, 素問大要, 大星醫學社, 1999.
7. 張志聰, 新編 素問集註, 大星文化社, 1994.

